

착한 예능 '시골경찰2' 인기에는 이유가 있다



'착한 예능' 시골경찰의 인기몰이 동
가 심상치 않다

18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시골경찰'이 감동과 웃음까지 다 되는 풍성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주인과 함께할 때 더 커지는 감

동 먼저 감동을 선사한 멤버는 신현준과 이정진이었다. 두 사람은 영주경찰서에서 안전 예방 홍보 물품을 받은 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문안 순찰 업무와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나섰다.

어르신들에게 지팡이를 전해드리며 일일이 높이를 조절해드렸고, 차갑게 식은 어르신 손에 잡아 드리며 따뜻한 체온을 나눴다. 또한 자신의 거칠고 굵은 손이 부끄럽다는 어르신에게 신현준은 "이 손으로 자식들을 먹여 살린 훌륭한 손"이라며 어르신 손의 가치를 높여주는 따뜻한 한

진심 담은 소통 시청자에 따뜻한 감동 선사

소소한 웃음·호평 이어져 관심 집중시켜

마디를 건넸다. 평소 어르신들과 진심을 담은 소통을 해왔던 신현준에게 가능한 위로였다. 특히 문안 순찰을 마친 뒤 후 인터뷰를 통해 "혼자 계신 어르신들, 외로워 보이는 어르신들 보면 마음이 아프다. 추운 겨울이라 더 많이 걱정된다. 저희가 더 많이 보살펴 드리고 싶다"라며 어르신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소소하지만 절대 소소하지 않은 웃음

이날 '시골경찰'의 웃음 포인트는 순진무구한 외모에 애교 넘치는 모습으로 순경인방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심쿵하게 만든 찰이었다. 아침 시간, 찰이는 순경들의 옷방에 물대 들어가 몸을 녹이며 꿀잠에 빠졌다. 가장 먼저 일어난 오대환이 아무것도 모른 채 웃음으로 항했고

찰이를 발견하고는 얼어붙은 모습을 보여 웃음을 지어냈다. 이내 찰이의 애교로 마음을 여는 춘테레 같은 모습을 보여준 오대환. 날이 갈수록 넘치는 애교와 매력으로 시골경찰과 밀당하는 찰이의 모습은 안방극장 팬들까지 매료시키기 충분했다.

오대환과 이재준은 남다른 출사위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보이소프싱 범죄 예방 활동으로 '벨로디 순찰'을 준비해야 했던 두 사람. 범죄 예방송의 노래 속지는 물론, 어르신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율동까지 준비하게 된 가운데 류지컬 배우 출신 오대환과 발레 전공자 이재준의 만남은 율동에 대해 기대를 높이기 충분했다.

하지만 공개된 두 사람의 율동은 가사에 100% 충실한 어르신 맞춤형 율동으로 치안센터 내 신배들은 물론 시청자들에게 반전을 안기며 깨알 재미를 선사했다.

▲뜻밖의 눈물, 색다른 웃음 포인트

마지막으로 네 명의 순경들이 뜻밖의 눈물을 보여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첫 음주단속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시골경찰.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고동우 멘토 경사가 앉은 기둥 아식을 사들고 숙소를 찾았다.

그런데 다 함께 아식을 품종 흡입하던 중 차례로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갑자기 터진 순경들의 눈물에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궁금증도 잠시, 눈물의 원인이 다름 아닌 아식이 매연으로 밝혀져 시청자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색다른 웃음 포인트로 작용한 것. 이 황당(?) 눈물은 아군이 담당 막내 이재준의 뒤처리로 일단락됐고 순경 4인방과 고동우 경사는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을 이어갔다.

시청자에게 감동과 웃음을 함께 선사하는 따뜻한 프로그램으로 호평 받는 '시골경찰2'가 앞으로 또 어떠한 재미 포인트와 감동 포인트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킬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식당2' 스페인 테네리페 섬...내달 5일 첫방



tvN '윤식당'이 2018년 새해 첫 문을 연다.

오는 2018년 새해 1월 5일(금) 밤 9시 50분, 새 시즌으로 돌아온 tvN '윤식당'이 첫 방송한다. '윤식당'은 배우 윤여정, 이서진, 정유미, 박서준이 스페인 테네리페 섬의 작은 마을에서 작은 한식당을 열고 운영하는 이야기를 담은 나영석 PD 팀의 신규 예능이다.

현재 인기리에 방송 중인 '할살 신집2'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작합사건) 후속으로 편성을 확정 지은 '윤식당'이 이번 시즌 달라진 점을 공개했다.

먼저, 시즌2는 신입멤버 박서준의 합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식당' 시즌1이 윤여정, 신구, 이서진, 정유미의 조합이었다면, 이번 시즌에는 연극 해의 일점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된 '구알바 친구의 뒤를 이어' 짧은 피 박서준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윤식당의 폐기 넘치는 막내로 함께 하게 된 박서준이 기존 멤버들과 어떤 케미를 만들어낼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또 한층 업그레이드 된 실력과 호흡을 뽐낸 윤여정, 이서진, 정유미의 활약도 기대포인트다. 이번 시즌2는 촬영지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섬으로

밝혀지며, 이국적인 풍광을 배경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은 "이번 윤식당2에서는 정신없는 도시를 떠나 조용한 소도시에서 시작하는 색다른 일상을 담을 계획이다. 누구나 지열한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한적한 곳에서 현지인들과 어울리고 함께 살아 가보는 꿈을 꾸곤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시즌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시즌1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배낭여행객들을 손님으로 모셨다면, 시즌2에서는 세계 각지역 여행객들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만나 정을 나눈 이웃들이 주 고객으로 등장해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어 "촬영지인 테네리페 섬은 유럽의 하와이로 불리며, 대서양의 숨겨진 행운의 섬으로 알려진 곳이다. 작지만 중세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에서 윤여정, 이서진, 정유미, 박서준이 작은 한식당을 내고 현지인들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며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적하지만 낭만이 있는 테네리페 섬에서 펼쳐지는 '윤식당'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7년 3월 첫 방송한 tvN '윤식당'은 배우 윤여정을 주축으로 파라다이스 같은 섬에서 작은 한식당을 열고 운영하는 이야기를 담은 리얼리티 예능으로, 방송 당시 순간 최고 시청률이 14.7%까지 치솟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새롭게 돌아온 tvN '윤식당2'는 오는 2018년 1월 5일 밤 9시 50분에 첫 방송한다.

지상과 월화극 모두 한 자릿수... '의미 없는' 시청률 전쟁



지상과 3사의 '의미 없는' 시청률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3사 드라마 모두 한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며 뚜렷한 승자 없는 시청률 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8일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투깝스' (변상준 극본, 오현종 연

출) 13회와 14회는 전국기준 6.3%와 7.4%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지난 방송에서 동시간대 최하위에 머물렀던 '투깝스'가 다시 1위로 치고 올라오고 왕좌에 올랐던 KBS2 '저글러스: 비서들' (조용 극본, 김정현 김수연 연출)이 6.4% 시청률을 기록하며 3위로 내려오는 결과가 나온 것.

두 드라마 사이에서 SBS '의문의 일승' (이현주 극본, 신경수 연출)은 13회와 14회 각각 6.8%와 7.3% 시청률을 기록하며 꾸준히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 시선을 모았다.

시청률 변동이 심화된 상태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비슷한 수준의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 3사 드라마인 '투깝스'와 '저글러스', '의문의 일승'은 모두 6~7% 한 자릿수 시청률을 유지하며 1%포인트 변동폭만으로 1위와 3위가 바뀌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어 '의미 없는' 시청률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 주 한 주 시청률 왕좌의 주인이 바뀌며 파이가 크지 않은 경쟁 속에서의 1위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

방송사들의 경쟁은 치열해졌지만, 시청자들은 체감할 수 없는 경쟁만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 사이에서 두 자릿수 시청률을 가져갈 수 있는 '진정한 승자'가 탄생할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착한 마녀전', 주연 배우 5인방 확정



'착한 마녀전'은 이다혜를 비롯해 류수영, 안우연, 배수빈, 윤세아 등 탄탄한 캐스팅 조합을 완성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SBS '착한 마녀전'은 이다혜, 류수영, 안우연, 배수빈, 윤세아 등 주연 배우 라인업을 확정했다.

19일 SBS는 새 특별기획 '착한 마녀전'(윤영미 극본, 오세강 연출)의 주역 5인방 캐스팅을 확정하고 촬영 준비에 돌입했다. 현재 방영 중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후속으로 내년 3월 방송 예정인

다. '착한 마녀전'은 너무 착해 탈이었던 주부가 '단칼 마녀'라는 별명의 못된 쌍둥이 동생 삼까지 이중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착한 주부의 위험천만 이중 생활극이다. 성격이 정반대인 쌍둥이 역을 소화하면서 개성 강한 카리스마 연기를 보여줄 연기자로는 일찌감치

이다혜가 낙점됐다. SBS에는 드라마 '불한당' 이후 약 10년 만에 주연으로 복귀하는 이다혜는 착한 주부 '차선희'와 차도너 승무원이자 단칼 마녀인 '차도희', 1인 2역에 도전해 그녀의 팔색조 매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항공사 부조종사로 율로족의 대표 주자 '송우진' 역으로는 류수영이 출연한다. 박해다시한 비혼주의자 송우진의 삶에 차선희라는 여자가 뛰어들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예정이어서 두 사람의 찰떡 호흡이 기대된다. 어디로 될지 모르는 사고뭉치이자, 항공사 CEO의 막내 아들 '오태양'은 안우연이 맡았다. 청춘시대 2에서 눈도장을 찍었던 안우연이 이다혜, 류수영과 함께 색다른 케미를 선사할 전망이다.

이어 배수빈은 차선희 남편 '봉천대' 역할로 출연한다. 화려한 연변의 소유자이자 감성 부자인 봉천대는 구직보다는 SNS 관리에 올인하는 실재자 남편이다. 윤세아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항공사 CEO의 장녀이자 항공사 전무로, 다혈질 캐릭터 '오태리'를 소화한다.

한편, '착한마녀전'은 '아내의 유희' '내마음 반짝반짝' 등을 연출한 오세강 PD가 메가폰을 잡고 '미녀의 탄생' '잘키운 딸 하나' '태양의 신부' 등의 운영비 작가가 집필해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착한 주부 '차선희'가 예기치 않은 음모에 휘말린 쌍둥이 동생 '차도희'로 살면서 겪게 되는 착한 주부의 위험천만 이중 생활극 '착한마녀전'은 2018년 3월 초 토요일 저녁 SBS를 통해 시청자를 찾아가다.

오늘의 순세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음력 11월 3일)



▶**경조** 재물은 항상 따르는 편이지만, 애정 난이 심하니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구나. 부부 화합의 문을 열고 대화로 풀어갈 때 반드시 길이 열린다. 4, 5, 9월생 붉은 계통 색이 힘을 준다.



▶**성세** 스스로 노력하면 하늘도 돕는 법. 어려웠던 시대가 지나고 좋은 날이 다가오는구나. 한 걸음 나아가 내 욕심부리지 말고 상부상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사, 토, 목 성세 투기 종목에는 손대지 말라 손실이 따른다.



▶**운세** 사업과 계획한 일들의 전망이 밝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펼쳐진다. 하지만 지출이 많구나. 건강할 때 먹는 보약이 몸에 효험이 더 큰 것처럼 있을 때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길이 대업으로 이끄는 발판이 됨을 명심하라.



▶**경조** 의욕이 상심되니 중도 포기 수가 있으나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사할 수다. 그러나 뚜렷한 목적 없이 새로운 일에 손대지 말라. 손실이 뒤따른다. 기, 수, 목 성세 생각지 않았던 사람에게 유혹을 받을 수니 조심하라.



▶**운세**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실속은 없고 겉치레만 화려할 뿐이구나. 자기 분수를 알고 현실을 받아들이라. 매사 자기보다 도움 주는 마음이 중요함을 알고 받은 만큼 갚을 줄 알아야 할 듯. 1, 3, 9월생 상대를 믿는 만큼 실망 또한 크겠다.



▶**경조**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도 용기 내 뛰어라. 의욕만 있다면 생각보다 순조롭게 이뤄질 듯. 친지나 친구의 지혜를 모은다면 효과는 100% 성과로 발전하겠다. 애정은 우정이 변해 결혼으로 이어지는 행운의 날이 될 듯.



▶**경조** 하던 일에 충실을 기하며 정진할 때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으나 마음에 변화가 생겨 일을 그러치게 되니 성급한 판단은 금물. 원수이, 양, 용피와 협력할 때 기대 이상 큰 성과를 얻을 듯. 7, 8, 9월생 노란색은 피하라.



▶**경조** 작은 투자로 큰 소득을 바라다면 허영 속에 헤매는 일이나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없지 않나. 지금 시련을 괴롭다 생각하지 말고 분발하면 늦지 않을 듯. 8, 9, 11월생 부부 화합해 새로운 마음 기쁨으로 용기백배하라.



▶**운세** 하는 일에 투자를 아끼지 말라.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주변에 하나둘씩 나타나고 소원을 이룰 발판이 마련될 듯. 열심히 노력하라. 길이 열린다. 2, 8, 9월생 짙은 피로가 누적하니 건강 조심.



▶**경조** 현재 일을 두 배 기쁨으로 만드는 것은 주위의 충고를 귀담아듣고 실행할 때다. 뿌리는 쓰지마, 그 열매는 달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기, 토, 목 성세는 금전적인 도움을 베푼다면 몇 배 더 큰 혜택이 주어질 듯. 음주운전 조심.



▶**경조** 미래와 결과는 매우 길하니 희망을 버리지 말고 지속해서 노력하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날 듯. 1, 8, 9월생 우연한 만남에 주의하고 허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라. 제조업, 서비스업 종사자는 길하다.



▶**경조** 남의 말을 함부로 따르지 말고, 신념을 갖고 일을 추진하면 풍요로운 결과가 나타날 듯.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 1, 7, 9월생 경계망으로 직장 내 문제가 발생할 듯. 음주는 특히 주의하라.